



## 유럽의 고전적 기록전통 관점에서 조망한 국내 기록물 관리 체계

『남유럽의 전통 기록물 관리』

김정하 저, 파주: 이담 북스, 2013

윤 은 하\*

공동체 기록관리로 국내 기록학계의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록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기록 관리의 전통을 상기한다는 사뭇 새롭다. 유럽 기록관리에 정통한 저자 김정하는 그의 두 번째 저서 “남유럽의 기록 관리”를 통해 로마법의 엄격한 체계와 정밀한 통제 아래서 생산·관리·유통 되어온 이탈리아 역사 기록관리 전통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탈리아 역사기록물의 개념과 용어, 역사기록물 관리의 역사적 변화과정, 현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기록물의 역할, 그리고 기업 활동과 역사기록물 등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남유럽의 기록 관리 전통에

\* 전북대학교 BK21+ 연구교수. 주요 논저 :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4호, 2011.

비추어 현 한국의 기록 관리를 평가하고, 분석했다.

1장에서 저자는 역사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를 재정립한다. 유럽적 전통에서 논의되는 기록물 개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록물 관리에서 사용되는, 기록, 문서, 기록물의 개념적 차이를 부각시켰다. 저자는 나아가 '기록 관리학'이란 용어 대신 '기록물관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장에서 저자는 1999년 이후 한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제정과 정비 등 일련의 기록 개혁이 있었지만 체도와 기능, 그리고 업무 영역에서 구체적인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기록관리 체계는 역사 기록물 관리(Archives Management)와 행정기록물 관리(Records Management)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제도와 과정의 개발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국내에서 행정기록물관리에 대한 편중된 관심이 균형감 있는 기록물 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국내기록학계가 ISO 15489와 같은 국제 표준에 대한 맹신, 비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 기록 원칙의 적용, 정보학적 관점으로 구축된 기능 분류 체계의 수립 등의 과오를 범했다고 말하며, 나아가 이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분류 및 가치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소 선언적이며 공격적인 비난을 통해 저자는 한국의 기록학계가 기록물의 근본적인 개념과 가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 즉 한국 기록학계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나친 신뢰나 기록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의 결여 등이 일면 타당한 지적임에도,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일방적으로 기록 관리에 대한 정보학(Information Studies, Informatics)적 접근 때문이라는 보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장에서 저자는 역사기록물관리와 중세의 법적 공신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로마법의 영향력하에 잘 정비된 기록물 관리 전통을 지닌 이탈리아의 기록들이 공신력과 공증제도라는 체계적인 제도하에서 얼마나 훌

통히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받았는가를 상세한 문헌 고증을 통해 소개한다.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정교하게 발전한, 이탈리아 기록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대학의 문서들, 교호, 가문 그리고 상인의 문서들이 어떠한 공신력하에 생산되고 관리, 보존되었는지를 풍부한 예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역사기록물에 대한 엄격한 검증의 역사를 토대로 역사 기록물의 활용에 관해 언급하고 미시사 연구와 같이 역사기록물을 활용한 구체적인 역사 방법론을 소개한다. 특히, 이탈리아 대표적 미시사가인 긴즈부르크가 역사연구를 위해 재판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상당히 날카롭다.

4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역사기록물에 관해 언급하며 기록물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생산주체에 의해 은폐되고 고의적 위조나 폐기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례를 폭넓게 조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는 법적 제재 뿐 아니라 기록물관리전문가를 위한 윤리 헌장의 마련을 촉구한다.

5장은 이탈리아의 바릴라(Barilla) 기업을 사례로 들며 기업의 역사기록물 관리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 논평,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비디오·오디오 등의 기업 자료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바릴라 기업의 역사기록관은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위한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 기업의 역사와 정신을 교육하고, 문화적 역할과 학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기업의 역사기록물이 보존은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서양 기록관리의 본원지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역사기록물 관리의 특징과 사례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기록에 대한 유럽의 전통적 관점을 잘 피력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서양 기록 관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